

『2014 서울사회적경제아이디어대회』
최종결과보고서

■ 실행 팀 명 : 대표자 박성은 (인)

작성자 박성은, 박경은, 양지 (인)

■ 확 인 자 : 센터직원 (인)

■ 예 산

- 실행지원금 예산 2,722,600원

- 실행지원금 집행 원

1. 실행팀 현황

실행팀명	큐피드 팀	대표자명	박성은
실행 기간	2014년 11월 11일 - 2015년 1월 31일		
실행 지원금	2,722,600원		
실행목적 및 배경	<p>큐피드 팀은 박물관에서 도슨트의 설명을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서울 시내 박물관에 있는 전시품들의 해설을 볼 수 있는 QR코드를 배포합니다. 이 QR코드를 찍으면 수화와 자막이 함께 제공되는 동영상으로 연결되어서 청각장애인들이 좀 더 편하게 전시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가 불편하신 어르신들, 스마트폰에 익숙한 어린이들, 도슨트 시간을 놓친 관람객들 등의 비장애인들 역시 누구나 관람하고 싶은 전시품을 각자에게 더 편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어 '유니버설 디자인' 실현도 가능합니다.</p>		
실행과제 및 목표, 추진계획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장애인의 문화생활 질 향상 • 유니버설 디자인 실현 가능 • 장애인식 개선 <p>이를 위해 수화 동영상이 삽입된 QR코드를 배포할 박물관을 선정하고 촬영 장비 대여 및 수화통역사를 섭외하여 해당 박물관 수화 동영상 제작에 들어갑니다. 촬영 후 수화동영상을 편집하여 QR코드에 담은 후 스티커 라벨지에 인쇄를 하여 박물관에 QR코드 인쇄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후 체험단을 모집하여 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피드백을 받을 것입니다.</p>		

2. 추진실적 총괄 ※ 아래 표를 참고하되 자유롭게 작성

구분	계획	최종 실적	성과달성율
활동명	<p>박물관에 있는 전시품 설명을 볼 수 있도록 수화와 자막이 함께 제공되는 동영상으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제작하고 배포하려 합니다.</p>	<p>현재 수화통역사 및 감수자분들과 함께 1~3차에 걸친 수화동영상 촬영 및 편집을 마쳤으며,</p> <p>1) 공연 예술 박물관의 경우, 촬영 및 편집된 동영상을 담당자분께 전달 드렸으며 담당자분께서 직접 아크릴 판에 인쇄하여 부착하실</p>	100%

		<p>예정입니다.</p> <p>2)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의 경우, 동영상 촬영 및 편집은 마쳤으며, 1/24 (토)에 인쇄 및 배부하였습니다.</p>	
교육기간	<p>전 기간에 걸쳐 팀원 모두가 동영상 촬영 및 편집 기술을 익히기 위해 책, 블로그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스스로 학습할 예정입니다.</p>	<p>가장 먼저 동영상 촬영 및 편집 기술을 독학한 박성은 팀장 주도 하에 팀원들에게 지식을 전수해주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영상 편집 작업을 마쳤습니다. 공연 예술 박물관과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동영상 편집 모두 마쳤습니다.</p>	100%
참여자 수	큐피드 팀원 총 3명	큐피드 팀원 총 3명	100%
세부성과목표	<p>수화통역사 및 박물관 컨택</p>	<p>시장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수화통역사를 섭외했을 뿐만 아니라 공연 예술 박물관,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과 성공적인 컨택을 마쳤습니다.</p>	100%
	<p>수화동영상 촬영 및 자막삽입</p>	<p>지금까지 1~3차에 걸친 수화동영상 촬영을 마쳤습니다.</p> <p>Adobe Premier 라는 편집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동영상을 편집하였습니다. 공연 예술 박물관과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동영상 총 80개 (목표개수 80개 중) 작업을 마쳤습니다.</p>	100%
	<p>QR코드 제작 및 배포</p>	<p>QR코드 제작은 현재 모두 마친 상태이며, 공연 예술 박물관의 경우 박물관 측의 배포 과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의 경우에는 인쇄 및 배포를 마쳤습니다.</p>	90%

	체험단 운영	공연 예술 박물관의 경우에는 박물관 측의 배포 과정이 1/31일 전에 완료되지 못해 체험단을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서 비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두 그룹으로 나누어 체험단을 진행하였습니다.	50%
협력기관(기관명) 수	박물관 총 3곳 협력 고려	박물관 총 2곳 협력	66.7%

3. 실행내용 및 세부추진실적

연번	일정명	일시/장소	참여인원/규모	활동내용 및 실적
1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담당자와 미팅	2014.12.13/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4명 (큐피드 팀 3명+박물관 담당자 1명)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담당자와 만나서 미팅을 가졌습니다. 위키서울과 큐피드 팀을 소개해드리자 큐피드 팀이 원하는 전시품 해설 목록을 직접 고르게 해주셨습니다.
	자체평가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담당자께서 위키서울과 큐피드 팀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수화동영상 촬영할 때 전시품 해설 스크립트가 필요한데 저희가 그 스크립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박물관 둘러보면서 관람객 입장에서 조금 더 설명 듣고 싶은, 더 궁금해 할 것 같은 전시품을 '선정해서' 해당 전시품에 대한 스크립트를 주시기로 했습니다. 담당자께서 관람객들에게 수화동영상이 담긴 QR코드를 단순히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유니버설 디자인 실현에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고 저희가 능동적으로 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잘 해야겠다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2	공연 예술 박물관 사전답사	2014.12.17/공연 예술 박물관	1명 (큐피드 팀 1명)	본격적인 촬영에 앞서 어떤 느낌으로 촬영을 진행하면 좋을지 파악하기 위해 공연 예술 박물관의 전시품을 직접 보았고, 오디오 해설 스티커 위치를 참고하여 QR코드 붙일 위치까지 고려하고 왔습니다.
	자체평가	12월 20일에 있을 1차 촬영에 앞서서 해당 박물관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맞게 촬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전답사 갔다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화통역사님의 의상과 넥타이 색깔 등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3	수화동영상 1차 촬영	2014.12.20/이화여자대학교 ECC	5명 (큐피드 팀 3명+수화 구연가 및 감수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공간 대여하여 공연 예술 박물관 분량 중 총 22편을 촬영했습니다.
	자체평가	팀원 모두가 전문적으로 영상 촬영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촬영 장비 대여에서부터 촬영하기 까지 많이 서툴렀습니다. 실제로 그 날은 영상 촬영한 시간보다 촬영 장비 세팅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정도였습니다. 처음이기에 미숙한 점이 많았지만 팀원들과 수화통역사님 간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다음 촬영 때 가장 보완해야 할 점을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4	수화동영상 2차 촬영	2015.01.03/이화여자대학교 ECC	5명 (큐피드 팀 3명+수화 구연가 및 감수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공간 대여하여 공연 예술 박물관 마지막 분량까지 다 촬영하여 끝냈습니다.
	자체평가	2차 촬영은 1차 촬영 때 여러 번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훨씬 더 수월하게 촬영을 마쳤습니다. 1차 촬영 때 비해서 카메라와 프롬프터 위치를 안정적으로 세팅했고 시간 당 찍은 편수가 늘었습니다. 벌써부터 3차 촬영이 기대됩니다.		
5	수화동영상 3차 촬영	2015.01.17/이화여자대학교 ECC	5명 (큐피드 팀 3명+수화 구연가 및 감수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공간 대여하여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 도입될 수화동영상을 끝까지 다 촬영하였습니다.
	자체평가	3차 촬영은 1, 2차 촬영 때보다 더욱 수월하게 프롬프터 및 카메라를 삼각대에 연결할 수 있었으며, 수화통역사 및 감수자분들도 큐피드 팀의 작업에 많이 익숙해지셔서 그런지 모든 촬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4.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 인쇄물, 포스터 등의 성과물은 3부를 제출할 것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비 고
1	동영상촬영	1. 공연 예술 및 서대문자연사 박물관 수화동영상 촬영 		
2	수화동영상 편집본	2. 공연 예술 박물관과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촬영분 편집 및 완성  	공연 예술 박물관은 총 촬영분량인 54개 작업을 마쳤으며,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은 총 26개 작업을 마쳐 총 80개 (목표작업량 80개 중) 작업을 마쳤습니다.	
3	QR코드	3. 편집된 영상을 QR코드로 담아내기 		

5. 실행팀 실행 운영방식

1) 팀원 간 주요 소통채널

저희 큐피드 팀의 경우, 3명의 팀원이 함께 만나서 위키 서울 관련 일을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날은 주말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느 팀보다도 온라인상으로 소통해야 하는 일이 많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소통채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주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키서울 관련 결정을 내렸으며, 오프라인에서 자주 만나는 것이 어려웠던 저희 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소통채널이었습니다.

1-1) 팀원 역할 분배

처음 세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박성은 팀장은 팀장으로서 총괄하며, 박물관 컨택과 섭외를 맡고, 양지 팀원은 예산 집행을 맡았고, QR코드 스티커 및 인쇄 컨택을 맡으며, 박경은 팀원은 촬영과 수화통역사 컨택 및 기자재 관리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에는 역할이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실행 시에는 박성은 팀원은 팀장으로서 총괄하며 주로 이메일 등을 통한 대외 협력, 수화 동영상 제작, SNS 업데이트 등을 맡았으며, 양지 팀원은 예산 집행과 수화통역사 컨택을 맡았고, 박경은 팀원은 촬영과 QR코드 제작 및 인쇄 컨택, 주간일지 작성을 맡았습니다.

1-2) 대외 협력

· 정부 부처 실무자→ 프로젝트 실행 초반 박물관 컨택을 시작했을 때에는 서울 소재 모든 박물관에 전화를 드려 박물관 실무자분들과 통화를 하고, 이메일 주소를 받아 큐피드 팀에 대한 자세한 설명문을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50개가 훨씬 넘는 이메일을 보낸 후에 총 2곳, 공연 예술 박물관과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각 박물관의 실무자분들을 만나 뵙고 스크립트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컨택에 있어서 실무자분들이 한 가지 보완할 점이 있다면 박물관 홈페이지에 이메일 주소를 게시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저희 팀의 입장에서 처음에 이메일로 바로 관련 서류를 전달해드릴 수 있었다면, 처음부터 훨씬 더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백두성 담당자님의 코멘트: 이러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은 저희가 원래 더 먼저 필요성을 인식하고 진행을 했어야 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번에 큐피드 팀의 프로젝트 덕분에 저희 박물관의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중에서 장애인이 없다보니 이런 쪽에 더 둔감해지고 먼저 이 부분을 보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방문 체험 활동을 여는데, 이번에는 시각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입니다. 저희 쪽에서도 앞으로 장애인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수화통역사 및 감수자→ 저희 팀이 수화통역사 및 감수자 분들을 한 유튜브 동영상에서 우연히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팀원 중 한 명의 친구 분께서 수화통역사분과 친분이 있으셔서 연락처를 받아서 이 분들에게 컨택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의 프로젝트가 수화통역사 및 감수자 분들에게는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부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

제적인 도움이 되었고, 스스로 청각장애인이시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의 문화생활 제고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희 팀이 위키서울 이후에 이런 서비스를 다른 박물관에게도 제공하게 된다면 이분들을 연결시켜 드려 더 많은 경제적, 사회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화감수자 김상희 님의 코멘트: 청각장애인이 박물관이나 전시관 같은 곳에 방문해도 음성중심으로 진행된 해설사만 배치되어 뜻 깊게 감상하지 못한 편입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과 세종박물관 등 일부 박물관에서 QR코드를 통해 수화영상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큐피드 팀이 공연 예술 박물관과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의 QR코드를 촬영 및 제작한다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수화영상이나 수화해설사가 확대됨으로써 농인의 문화 향유권이 보장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본부터 촬영장비, 구연, 감수, 편집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큐피드 팀이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임한 모습에 감동 받았습니다. 우리도 조금이나마 박물관을 관람하는 청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 자료 공유방식

저희 큐피드 팀은 동영상 촬영하고 편집하는 과정이 중요했기 때문에 특히나 자료 공유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저희는 저희 팀의 네이버 이메일 계정을 만들면서 그 계정의 엔드라이브를 이용하여 촬영 동영상 및 편집된 동영상을 팀원들끼리 수월하게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1월 중순에는 기존 네이버 계정의 엔드라이브의 용량이 모자라게 된 까닭에,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엔드라이브를 더 이용할 정도로 저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 공유 방식이었습니다.

3) 의사결정 방식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 큐피드 팀의 경우 3명의 팀원이 함께 만나서 위키서울 관련 일을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날은 주말밖에 없었기 때문에 덜 중요한 의사결정의 경우에는 카카오톡 상으로 이야기를 나눈 후에 결정을 내렸고, 팀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의 경우에는 주말에 촬영 등으로 오프라인으로 만날 때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대외 홍보 전략

저희 큐피드 팀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이렇게 3개의 SNS 채널을 이용하여 대외 홍보를 하였습니다. 비교적 꾸준히 각 SNS 채널에 글을 올렸으나,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저희 팀의 활동 및 결과물이 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에게 특화된 홍보 전략을 미처 세우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교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저희 팀을 소개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공연 예술 박물관과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게 보도 자료를 제작할 것을 요청드리거나 혹은 특수학교에 저희 팀을 소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6. 수행결과 자체평가

○ 계획서에 작성하였던 목적과 활동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 저희 팀은 계획서에 수화동영상 80편을 제작하고 QR코드에 그 동영상을 담아서 인쇄하여 배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부분을 계획서에 거의 100%에 가깝게 현실화 시켜서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이 목적과 활동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저희 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계획서에 작성하였던 목적과 활동이 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적경제 아이디어실행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 가장 어려웠던 점 중 하나는 팀원 간의 협력 방식이었습니다. 익숙하지 않고 어려운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80편의 동영상을 짧은 기간 안에 모두 편집해서 박물관 측에 약속된 시간까지 넘겨주어야 한다는 점이 어려웠습니다. 80편이 적은 양은 결코 아니었기 때문에 팀 내에서 나눠서 편집하려고 하였으나, 팀원 중 수화를 전혀 모르는 팀원이 있어서 편집 배분이 쉽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동영상을 자르고 이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편집 중에도 크로마키 편집이라는 특수한 편집을 이용해야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수화를 할 수 있는 두 명의 팀원이 대부분의 동영상 편집을 맡았고, 나머지 한 명의 팀원은 편집된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QR코드를 제작하는 식으로 배분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또 다른 어려웠던 점은 박물관 컨택이었습니다. 각 박물관 홈페이지에 전시품 설명 및 교육 부분을 담당하시는 담당자분들의 이메일은 물론, 박물관 대표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지 않아서 서울 시내 소재 모든 박물관에 전화번호로 먼저 이메일 주소를 여쭙본 다음에 각각 따로 이메일을 보내야했습니다. 50곳이 넘는 박물관에 메일을 보낸 후 마침내 2곳의 박물관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다른 박물관은 물론이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국립중앙박물관도 장애인 관람객 방문 수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지 않거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관람객과 통계를 같이 계산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많이 방문하는 박물관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저희의 계획을 일부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박물관 컨택 면에 있어서 장애인 방문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점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아이디어 실행 성과(사회적, 경제적 효과 등 기대효과)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저희 큐피드 팀은 수화동영상 및 QR코드라는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사회적,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회적으로는, 이번 저희 팀의 프로젝트가 계기가 되어 박물관 측에서 장애인의 문화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

려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본다면,

1) 서울시의 두 박물관의 실무자분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생각을 작게나마 바꿔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각 박물관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크게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큐피드 팀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박물관이 청각장애인들의 문화생활 향유에 대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작은 인식 변화가 언젠가는 커다란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저희 큐피드 팀의 프로젝트가 서울 시내 더 많은 수의 박물관으로 확장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작은 비용 (약 500만원)을 투입하여 많은 수의 청각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경제적 이익이 있습니다. (12페이지의 별첨 9 참조)

○ 아이디어 실행을 통해 부족했던 부분과 아쉬움이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 저희 큐피드 팀의 부족했던 부분 및 아쉬움이 남은 점은 홍보 부분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토티리 채널 이렇게 3개의 SNS 채널을 개설하여 꾸준히 글을 올려 홍보에 많은 힘을 쏟으려고 하였으나 각 채널에 꾸준히 많은 수의 포스팅을 올리지는 못하였으며, 저희 팀의 활동 및 결과물이 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에게 특화된 홍보 전략을 미처 세우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청각장애인만을 위한 홍보 전략을 실행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세워 실행에 옮겼더라면 좀 더 의미 있는 홍보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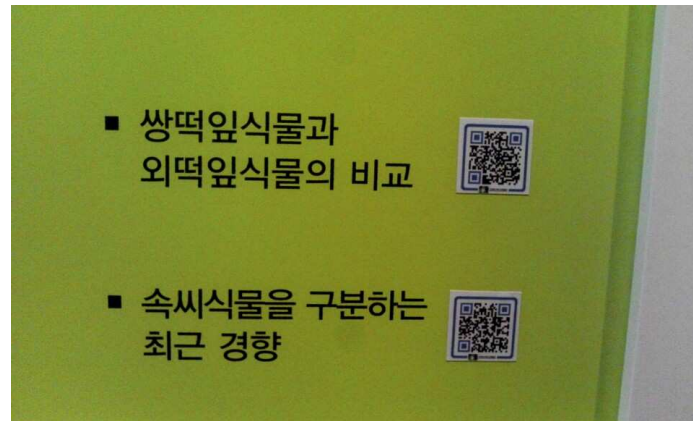
○ 팀원들의 한줄 평가

- 박성은 : 박물관 컨택, 수화통역사 섭외, 영상 편집 등 매번 고비가 있었지만 팀원들 모두가 협력하여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불완전해 보이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양지 : 본 프로젝트를 시작한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 동안 박물관 컨택, 동영상 촬영 및 편집 등 힘든 일이 많았지만 끝까지 함께한 팀원들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경은 :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벌써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만이 남아있지만 끝까지 팀원들과 힘을 모아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타의견 - 아이디어 실행이 박물관에게 끼친 영향



아이디어 실행 초기인 12월 초에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담당자분과 처음 미팅을 할 때, 위 사진에 해당되는 전시물은 아직 미완성이라고 소개해주셨습니다. 박경은 팀원이 완성된 라벨을 가지고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 방문하여 전시물을 둘러보니 몇 달 전 미완성이었던 전시물이 저희가 제작한 QR코드와 같은 디자인으로 박물관 측이 QR코드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부착한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과의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QR코드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박물관 측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인지하여 이와 같은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변화는 저희 프로젝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박물관 내의 QR코드가 앞으로도 저희가 제작한 QR코드와 같은 디자인으로 부착된다면, 저희 라벨이 박물관의 전반적인 디자인과 잘 어울리게 되어 관람객들에게 일관되고 통일된 느낌을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